

MARCH 2023

기후 리더십 시대: CEO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

CEO와 투자자, 둘 중 누가 기후변화 아젠다에 대해 더 관심이 높고 민감할까?
PwC 최근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CEO들보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EO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기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 I. CEO와 투자자 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 II. CEO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3가지 방안
- III. ESG 데이터 수집, '기후 리더십'의 시작

최근 PwC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CEO들은 투자자들에 비해 기후변화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후변화를 향한 기업의 행동 변화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와 CEO간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CEO들은 비즈니스나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복합적인 관점에서 고민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주요 시장 트렌드가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와 CEO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CEO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후변화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지구 기온 상승과 태풍은 사업장 및 비즈니스 운영에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을 초래한다. 두 번째,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 관련 규제, 소비자와 투자자의 환경을 고려하는 인식 등의 변화로 인한 '전환 위험(Transitional Risk)'은 기업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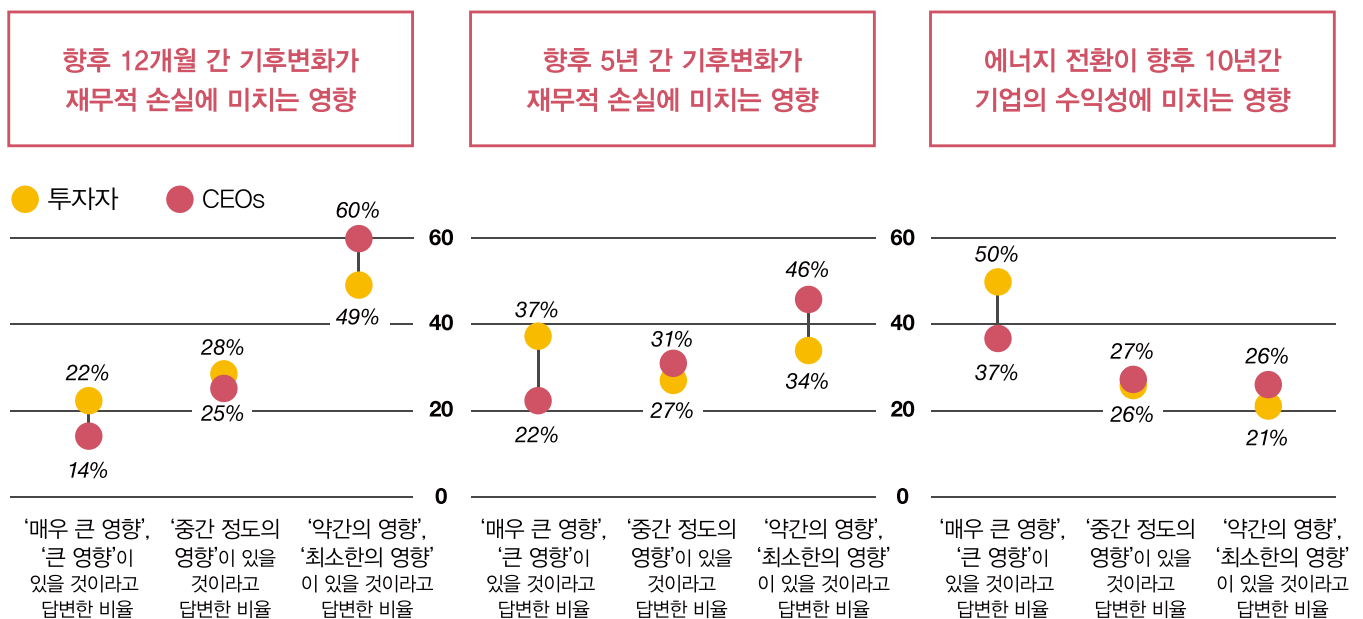
CEO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의 우선순위 영역인 '수익성과 혁신을 보장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기후 리더십'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I. CEO와 투자자 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CEO, 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낮아

PwC는 기후변화가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투자자들과 CEO들에게 각각 질문하였다.

1. 향후 1년 동안, 기후변화(물리적 위험¹, 전환 위험² 모두)가 귀사의 재무적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향후 5년 동안, 기후변화(물리적, 전환 위험 모두)가 귀사의 재무적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사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회사의 수익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te: 2가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독립변수(투자자, CEO)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성 비율을 추정

Source: PwC 제26차 연례 CEO 서베이, PwC 글로벌 투자자 서베이 2022

¹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 태풍, 허리케인 등이 기업에게 초래한 물리적인 위험을 일컬으며, 물리적 위험의 예시로는 생산 공장 가동 중단 및 본점·지점의 업무 중단 등이 있다.

² 전환 위험(또는 이행 위험, Transitional Risk):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은 기업에게 전환 위험을 초래하며, 전환 위험의 예시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가치 하락,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비용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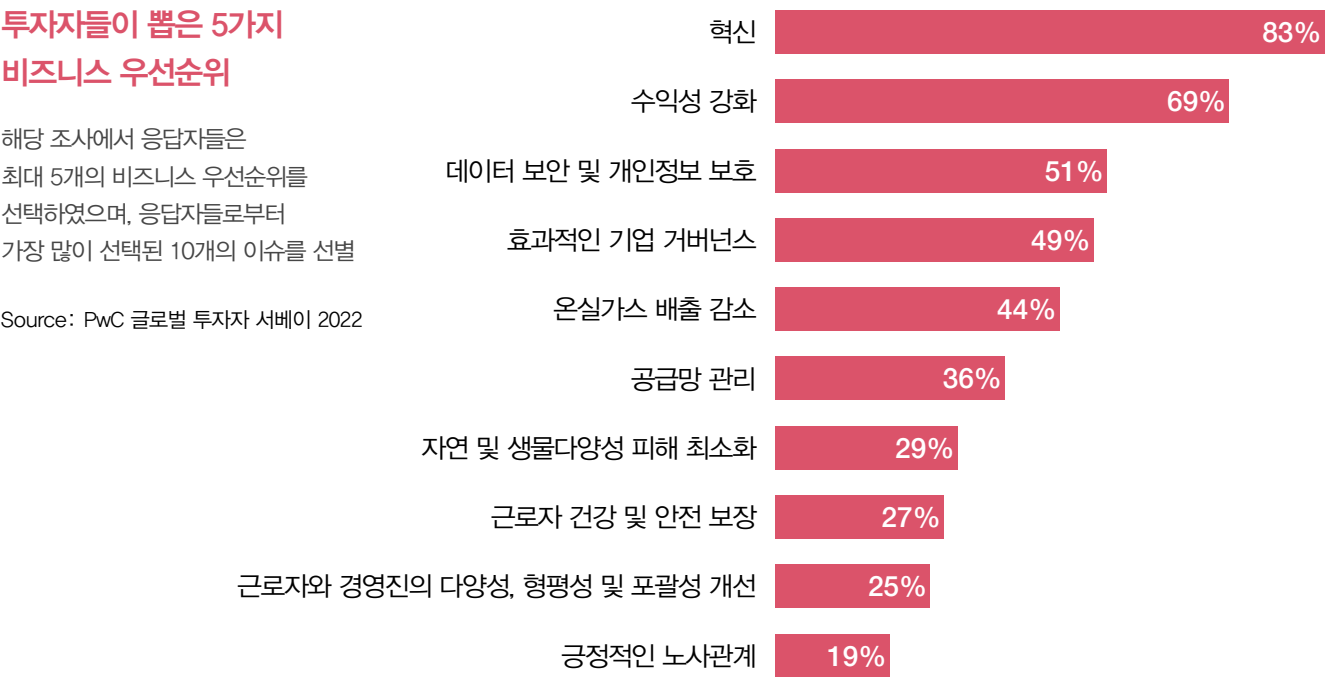
최근 PwC가 진행한 2가지 설문조사(PwC 제26차 연례 CEO 서베이³, PwC 글로벌 투자자 서베이 2022³)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CEO와 투자자의 시각 차이는 다음과 같다.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CEO들은 투자자들에 비해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 투자자들이 ‘향후 1년 간,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적 손실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CEO들에 비해 1.6배 더 높게 나타났다.
- 투자자들이 ‘향후 5년 간,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적 손실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CEO들에 비해 약 2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 투자자들이 ‘향후 10년 간,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CEO들에 비해 1.4배 더 높게 나타났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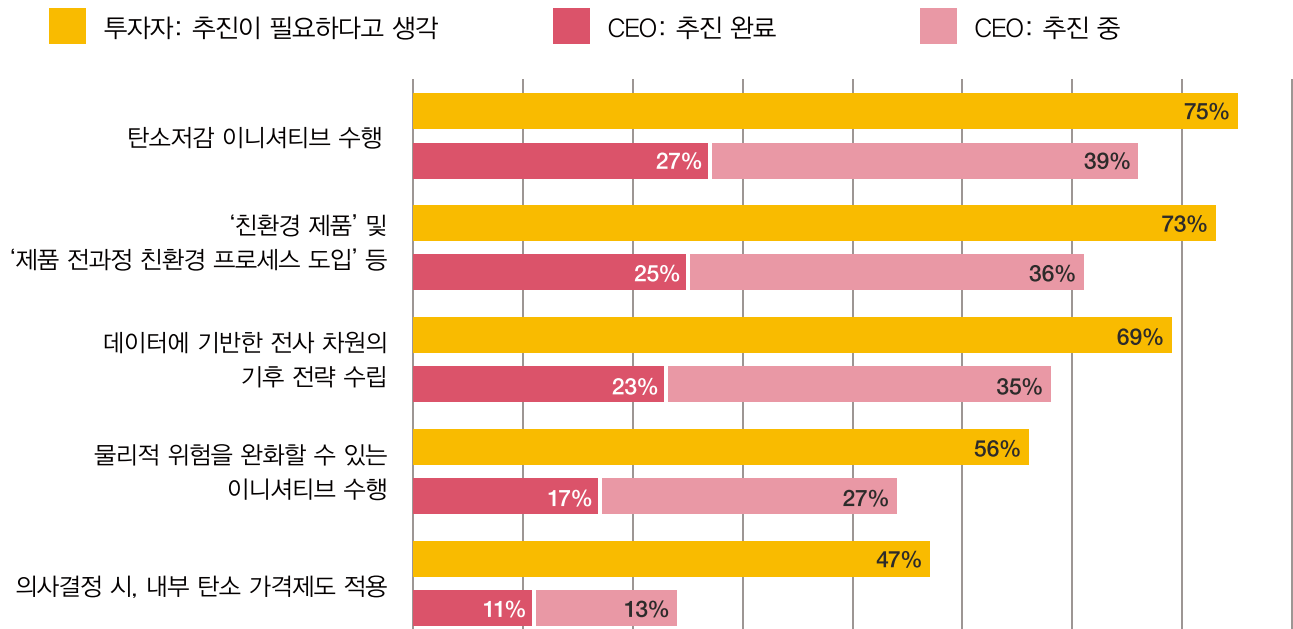
CEO의 기후조치, 아직은 투자자의 기대에 못미쳐

PwC의 최근 글로벌 투자자 서베이(PwC’s Global Investor Survey 2022)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5가지 이슈를 질문하였으며, 응답자의 83%가 ‘혁신’을, 69%가 ‘수익성 추구’를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우선순위 중 하나로 꼽았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5번째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³ PwC의 2가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기업의 재무적 손실 영향’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익성’ 관련 질문에 대한 투자자와 CEO의 답변 가능성을 추정

PwC는 투자자들에게 ‘추진이 필요한 기업의 기후변화 조치 5가지’를 선정하도록 요청하였고, CEO들에게는 실제로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기후변화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와 CEO의 실제 실행력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Source: PwC 제26차 연례 CEO 서베이, PwC 글로벌 투자자 서베이 2022

투자자들은 기업에 기대하는 ‘기후변화 조치’의 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1위: 탄소저감 이니셔티브 수행 (75%)
- 2위: '친환경 제품' 및 '제품 전과정 친환경 프로세스 도입' 등 (73%)
- 3위: 데이터에 기반한 전사 차원의 기후 전략 수립 (69%)
- 4위: 물리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수행 (56%)
- 5위: 의사결정 시, 내부 탄소가격제도 적용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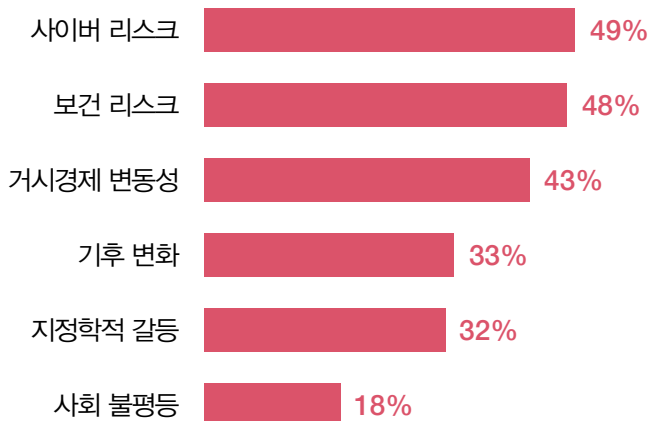
반면, 투자자들의 기대에 비해 CEO들이 실제 해당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실행 중인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I. CEO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3가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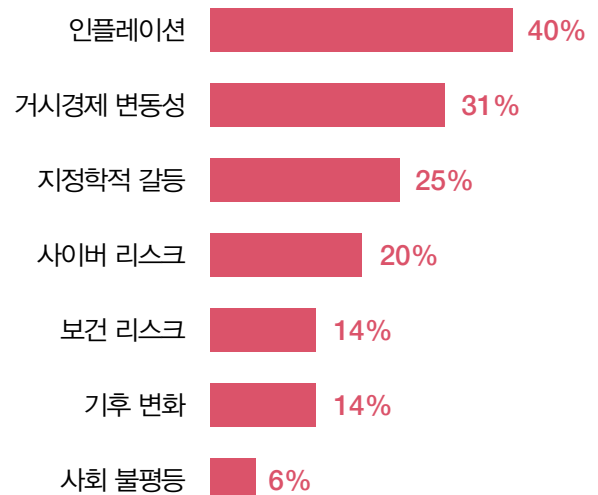
PwC가 매년 시행하는 CEO 서베이의 2021년과 2022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CEO들은 투자자들에 비해 더 다양한 관점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PwC가 2021년에 실시한 연례 CEO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향후 1년 동안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또는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2022년 서베이에서는 응답자의 14%만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2021년에 비해 더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질문: 귀하의 회사·조직은 향후 1년 동안 아래의 위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제25차 CEO 서베이 결과 [🔗](#)



2022년 제26차 CEO 서베이 결과 [🔗](#)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점철된 혼란스러운 2022년 경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CEO들은 기후변화 리스크 외에도 다양한 사안을 비즈니스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자와 CEO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PwC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혁신과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후대응 방안 수립

투자자와 CEO들 모두 ‘에너지 전환은 향후 10년 간 기업에게 수익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번 조사에 응한 CEO의 37%는 에너지 전환이 향후 10년간 기업의 수익성에 ‘매우 큰 영향’ 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투자자의 50% 또한 동일하게 답변하였다.

앞서 언급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5가지 비즈니스 우선순위 결과는 1위가 ‘혁신’, 2위가 ‘수익성 강화’, 3위가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4위가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5위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였다. CEO들은 투자자들의 이러한 우선순위인 혁신 활동과 회사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에 알맞은 기후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비즈니스와 관련된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기후 변화와 관련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후변화 관련 활동의 재무적 영향도(비용 감소 측면이나 수익성 확보 측면 등)를 측정하고 예측하면서 기후변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기후대응 프로그램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원칙

2022년 PwC 글로벌 투자자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의 81%는 ESG 목표 달성을 위해 1% 이하의 수익 감소만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ESG를 지지하면서도, 실제로 수익율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길 원하는 ‘딜레마’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CEO들에게 투자자들이 원하는 성과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있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응답자의 70%), 지속가능성 요인이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연관성(응답자의 69%)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엄격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CEO들은 기업이 시행하고자 하는 기후대응 프로그램의 재무적 영향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원칙’과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품질 개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시가 효과적이라고 답변한 투자자들은 40% 미만이었다. 또한, 투자자들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때, 재무제표(89%), 기업과의 대화(81%), 지속가능성 공시 이외의 서술적 보고(80%), 심지어 제3의 데이터에 의존(79%)한다고 답하였으며, 기업이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이용한다는 답변은 61%에 불과하였다.⁴

투자자들의 87%는 ‘기업이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일부 그린워싱(Greenwashing)⁵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 가운데,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인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글로벌 투자자 서베이 결과에서는 투자자들의 75%가 재무제표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함을 요구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증(Reasonable Assurance)’절차를 거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답변한 반면, 응답자의 46%는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을 받은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CEO들은 회사의 지속가능성 공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실’에 기반한 ESG 데이터 수집,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목표와 전략 수립, 정성적·정량적 정보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

4 해당 질문의 답변을 ‘매우 많이 활용’, ‘많이 활용’,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

5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

6 해당 질문의 답변을 ‘약간 신뢰’, ‘최소한의 신뢰’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

III. ESG 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후 리더십'의 시작

최근 PwC가 발표한 2가지 조사 결과(PwC 연례 CEO 서베이⁷, PwC 글로벌 투자자 서베이⁸)를 바탕으로 CEO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 PwC가 제안한 방안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외부에 흩어져 있는 ESG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추구하고 '수익성'을 보장한 기후대응 방안 수립, 기후대응 프로그램의 '재무적 영향' 파악,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신뢰성'은 '정확한 ESG 데이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회사의 혁신 방향과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후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기후 관련 프로그램의 재무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원칙'과 '시행 방안'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공시의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ESG 경영 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에 기업만의 차별적인 ESG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투자자들의 기후변화를 향한 우려는 기업의 행동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신뢰할 만한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기업의 기후 행동을 새로운 가치 창출과 연결시키고, 투자자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한 CEO들은 자본 시장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인 '기후 리더십'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⁷ 전 세계 105개국 4,410명의 최고경영자(이하 CEO) 대상 설문조사 진행

⁸ 전 세계 43개국 227명의 투자자들 대상 심층 인터뷰 진행

본 보고서는 PwC 글로벌 자료인 'Climate leadership wanted: How CEOs can better meet investor expectations (by Emma Cox, Will Jackson-Moore, and Nadja Picard)'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is report

삼일PwC Markets

장은영 Director
celia.e.jang@pwc.com
+82-2-3781-0057

윤이나 Senior Associate
ena.yun@pwc.com
+82-2-709-8539

Contact

PwC Korea ESG Platform

ESG Platform Leader

스티븐 강 Partner
steven.c.kang@pwc.com
+82-2-709-4788

삼일PwC

Assurance

권미엽 Partner
miyop.kwon@pwc.com
+82-2-709-7938

이진규 Partner
jin-kyu.lee@pwc.com
+82-2-3781-9105

Tax

심수아 Partner
sooa.shim@pwc.com
+82-2-3781-3113

김홍현 Partner
hong-hyeon.kim@pwc.com
+82-2-709-3320

Deals

곽윤구 Partner
yun-goo.kwak@pwc.com
+82-2-3781-2501

서용태 Partner
yong-tae.seo@pwc.com
+82-2-3781-2340

PwC컨설팅

윤영창 Partner
youngchang.yun@pwc.com
+82-2-709-3354

www.samil.com

S/N: 2303W-RP-012

© 2023 PwC Kore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